

'익산형 주거안정' 대폭 강화

청년·신혼부부 최대 10년간 주거비 지원... 안정적 지역 거주 기반 마련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게 지역에 정착하도록 익산형 주거안정 사업을 강화해 청년층 인구 유입 효과를 노린다.

시는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돕는 각종 주거지원정책 기준을 부동산 시장가에 맞춰 대폭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신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청년 및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먼저,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기준을 당초 1억5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에 한 해 대출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임차보증금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청년은 연 최대 300만원, 신혼부부는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다.

대상은 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39세)과 신혼부부다. 익산시 협약 은행에서 전세대출 실행했을 때 대출 이자의 3%를 익산시가 협약은행에 대

신 납부해준다.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가구에 한한다.

익산시는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의 90%,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19세~만39세)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미혼 직장인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의 3%를 연 최대 300만원,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및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완료된 상태로, 지역 금융기관(농협, 전북은행)과 협업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 해당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이 악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

이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에 나선다.

시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 60만원 이하 규모의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년간 한 시적으로 신청받으며 921천8백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수혜 대상은 약 38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조사를 통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인터넷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포털(www.bkjiro.go.kr) 사이트에 개설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를 구비해 복지포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현을 시장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지원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지역에 정착해 미래를 꿈꾸고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는 품격도시 익산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지난 19일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 주관으로 '나눔경영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환경보호와 실천 적극 동참"

군산시자원봉사센터, 나눔경영 사회공헌활동 펼쳐

군산시는 지난 19일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 주관으로 '나눔경영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6월 처음 추진한 이후 두 번째인 이번 나눔경영 사회공헌활동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봉사단체가 뜻을 모아 지역주민에게 나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의 9개 봉사단체 3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는 선유도, 무녀도 등 도서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노후 가스레인지 10대를 교체·지원했다.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 (주)씨앤에이치,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토탈공예 봉사단, 대미나 봉사단, 다뜻다뽀 봉사단, 친환경 봉사단, 다담돌 봉사단은 해안가를 돌며 생활 쓰레기와 페어구 등을 수거했다.

이동기 여성가족과장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나눔경영 활동도 뜻깊게 동참해 준 기업과 자원봉사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나눔경영 사회공헌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군산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음주, 흡연,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여름방학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8일 늦은 오후 근대역사박물관 주변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청소년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에는 청소년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 삼동청소년회군산지회, 군산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편의점, PC방, 일반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는 근대문화거리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금지 및 출입·고용 금지 의무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홍보물 등을 배부하면서 업주와 지역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건실 아동청소년과장은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은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본회의 표결 시 기록표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록표결이란 표결 시 찬반의원의 숫자만 기록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투표지와 찬반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결정과 의원 개인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자투표는 투표종료와 동시에 본회의장 정면 스크린에 투표결과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표출되므로, 시민들에게는 주요 의안에 대한 결정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 안전에 대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의사 결정 부분을 공정하게 진행하게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의회, 9대 초선의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익산시의회(최종오 의장)는 지난 18~19일 제9대 초선의원 총 12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7월 의정활동을 시작한 초선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지방자치법과 익산시 조례로 접근하는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하반기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비한 유용한 실무교육이 이뤄졌다.

이어, 시티투어를 통해 익산 생령, 미륵사지, 용안생태습지공원 등 주요 명소를 둘러봤으며,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5선위원을 역임한 김용균 전 의원이 '성공적인 의정활동 길라잡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에서 '4대 종교와 떠나는 문화여행' 즐겨요

4대 종교 대표자, 치유순례 프로그램 추진 업무 협약 체결

익산시가 4대 종교의 문화와 함께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즐길 수 있는 치유 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19일 종교문화 치유 순례 프로그램인 '다이로온 익산여행'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4대 종교 대표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시장과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 종교 대표자, 다이로온 익산여행의 코스 중 하나인 아가페 정양원 대표 등 13명이 참석했다.

다이로온 익산여행은 4대 종교 순례길과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사업에 버리고, 비우고, 채우는 다이로온 익산여행'으로 공모해 선정됐으며 국비 9천만원을 지원받아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순례길 위주로 진행되는 당일 코스와 삼기번 숙박마을



익산시가 4대 종교의 문화와 함께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즐길 수 있는 치유 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파니 힐링팜 등 마을에서 운영하는 민박업체를 활용해 익산의 대표 관광지를 여행하는 1박2일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각 종교 대표자는 관광객들에게 종교문화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4대 종교단체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은 물론 치유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